[오픈소스SW-개발 최종보고서]

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일시 | 2020년 6월 25일 | | | |
| 팀원 | 김정민 | 2019041094 | 윤성빈 | 2019082206 |
| 강예원 | 2019054693 | - | - |
| 내용 | 안녕하세요. Kimmessicorp 입니다. 저희는 이번에 ‘Shout-Out’이라는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저희 kimmessicorp의 리포지터리를 확인하시면 알 수 있듯이, ‘하고 싶은 말을 큰소리로 다 말하자’라는 취지로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정하였고, 약 한 달의 시간동안 정성을 들여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. 각자 하고 싶은 말들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큰소리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,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고자 하였던 저희의 기획의도가 담겨 점점 가치 있는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. 아래 내용은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보고 듣고 느꼈던 것을 최종적으로 기재한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  **<계획했던 것이 무엇인가>**  -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그 어떤 제약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. 그 결과 게시판의 형태로 앱을 만드는 것이 가장 기획의도와 근접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 - 애플리케이션의 완성에 관한 면에서는, 1차 계획으로 로그인 기능, 회원가입 기능, 게시판 목록, 게시글 보기 기능 등을 계획했고, 이를 완성하게 되어 2차 계획으로 댓글 작성 기능, 댓글 목록, 아이디 및 비밀번호 수정 기능, 게시물 삭제 기능, 좋아요 기능, 새로고침 기능, 아이디 중복 확인 기능을 진행하게 되었고, 이 중 새로고침 기능과 아이디 중복 확인 기능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.  **<계획했던 것을 얼마나 완성했는가>**  - 처음에는 게시판에 게시물을 띄우고 작성할 수 있는 정도까지 생각했으나, 그 목표를 이루어 부가기능을 하나씩 추가하게 되었습니다. 그 결과 댓글을 작성하고 읽어오는 기능을 제외하고는 계획했던 것을 꽤 완성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.  **<어떤식으로 협업/커뮤니케이션을 했는가>**  - 저희는 각자 자신의 파트를 맡아 브랜치를 나누어 pr을 하고, 코드리뷰를 한 뒤 머지하는 방식으로 협업을 진행했습니다. 팀원 간의 소통은 주로 Slack으로 진행하였고, 프로젝트에 관련해 협의나 토론이 필요할 때는 github의 issue란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. 후에는 github의 project란 또한 활용하여 해야할 일, 진행 중인 일, 한 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계획을 또렷이 세웠습니다. 그 결과, 10개의 issue와 23개의 pull requests, 1개의 project를 진행하였습니다.  **<코드 리뷰는 어떻게 이루어 졌는가>**  - 코드 리뷰의 경우, github의 pull request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. 마스터 브랜치에 직접 커밋, 푸시 하는 경우 실수와 실패가 반복될 가능성이 커 작업 효율에 있어서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각자 따로 브랜치를 만들고, 마스터 브랜치에 pull request를 한 뒤, 팀원들이 작성한 코드를 코멘트 형식으로 리뷰해주고, 팀의 동의를 얻고 난 후 머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.  **<slack/issue/pull request/project등을 이용해보며 느낀점>**  - slack의 경우 처음 접해보는 소통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금방 적응이 될 정도로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Issue와 pull request, 그리고 project를 이용해보았는데, 협업에 최적화 되어 있는 면이 너무 편리했습니다. Issue를 통해 문제가 있는 부분이나 화면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등을 소통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어 좋았고, pr을 통해 상대방의 코드 리뷰도 진행할 수 있어 슬랙에서만 소통할 때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니 혼자 할 때보다 힘이 났고, 해결방법에 대한 의견을 얻을 수 있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수월했습니다. 이번 기회를 통해 앞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협업하는지 감을 잡을 수 있어 가치있는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 **<부족했던 점>**  - 댓글 기능과 좋아요 기능, 게시물 삭제 기능을 더 추가하고 보완하여 완성시키고 싶었지만 시간도 부족했고, 복잡하여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.  **<성장한 점>**  - 팀원 모두가 DB를 처음 사용해보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하는 것에도 익숙치 않았습니다. 그러나 구글링과 여러 참고를 통해 열심히 알아가려 노력하였고, 서로 소통하며 팀워크를 다졌습니다. 그 결과, 각자의 실력 향상은 물론, 어느정도 완성도 있는 앱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 저희가 성장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 **<팀 리포지터리>**  - <https://github.com/Kim-jeongmin/ShoutOut-Android>  **<프로젝트 홈페이지>**  - <https://github.com/Kim-jeongmin/ShoutOut-Android/projects>  **<보고서 폴더 링크>**  - <https://github.com/Kim-jeongmin/ShoutOut-Android/tree/master/보고서(문서화)%20폴더>  **<Issue>**  - <https://github.com/Kim-jeongmin/ShoutOut-Android/issues>  **<Pull Requests>**  - <https://github.com/Kim-jeongmin/ShoutOut-Android/pulls> | | | |
| 끝맺는말 | 처음에는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. 아직 안드로이드에 관한 실력이 부족했기에 이런 저런 실패도 겪어보고, 이것 저것 참고문헌을 찾아 처음에 저희가 세웠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. 그 결과, 생각보다 훨씬 괜찮은 앱이 탄생할 수 있었고, 팀원 각자의 경험, 실력, 팀워크 또한 크게 향상했음을 느껴 가치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| | | |